

“일제강점기 학교 건축·운영비까지 조선인에 전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학교 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선인에게 부담시키고, 기부자에게 총독 명의의 포상을 내리며 교육시설 확충을 독려했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공개됐다.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식민지 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인 심정섭 사백(전 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은 최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이 기부자에게 수여한 목배와 포장(표창장) 등 관련 자료 3점을 공개했다.

자료는 2대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1917년 기부자에게 하사한 목배 1점과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 명의의 공립보통학교 건축비 및 운동기구 기부 포장 2점이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교육정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선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1911년 10월 28일 제령 제12호로 ‘공립보통학교비율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공립보통학교 설립·유지 비용을 임시의사금 이자와 향교재산 수입, 기본재산 수입, 수업료, 기부금, 국고·지방비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면서, 부족한 비용은 학교 설립구역 내 조선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부담금은 국내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도

심정섭 명예관장, 총독 명의 목배·포장 등 사료 3점 공개 기부자 포상하며 건립 독려…식민통치 협력 분위기 조성

있었다.

국가기록원은 당시 공립보통학교 설립·운영 비용에 조선인의 부담을 지우는 제도가 운영됐으며, 1920년에는 ‘조선학교비율’이 제정돼 부·군·도에 학교비를 설치하고 공립보통학교 재정을 관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소장한 1927년 ‘마령공립보통학교 건축비’ 영수증에도 공립보통학교비율령에 따라 학교 설립구역 내 조선인에게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

심 관장이 공개한 목배는 가로 30.1cm, 세로 22.7cm 크기로, 1917년 4월 전남 광양군 진하면·진월변장을 지낸 안형선이 공립보통학교에 첩판과 교탁 등을 기부한 뒤 같은 해 9월 20일 하세가와 총독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목배는 기념·포상물의 일종으로 오늘날의 우수컵과 비슷한 형태다.

1922년 경남 거창군 가조동면에 거주한 변영섭이 가조공립보통학교 건축비로

120원을 기부한 뒤 받은 포장도 공개됐다. 사이토 마코토 총독 명의인 이 포장은 1922년 3월 학교 건축비를 기부한 뒤 같은 해 11월 15일 수여됐다. 크기는 가로 36cm, 세로 27.3cm다.

세 번째 자료는 1923년 전남 고흥군 도양면 풍덕리에 거주한 김상섭이 도양공립보통학교에 운동기구 2대를 기부한 뒤 받은 사이토 총독 명의의 포장이다.

심 관장은 총독부가 지역 유지들의 기부를 학교 건축과 교육시설 확충에 활용하는 한편 포상을 통해 기부를 독려하면 서 식민통치에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심 관장은 “당시 조선인 유지들이 학교와 교육시설을 위해 기부하고 총독의 포상을 받은 자료는 식민지배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며 “천일 인사들의 행적뿐 아니라 자료에 담긴 역사적 맥락을 정확히 확인하고 후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민족문제연구소 지도위원이자 식민지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인 심정섭씨는 최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이 기부자에게 수여한 목배와 포장(표창장) 등 관련 자료 3점을 공개했다. 자료는 2대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가 1917년 기부자에게 하사한 목배 1점과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 명의의 공립보통학교 건축비 및 운동기구 기부 포장 2점이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목포보성선 개통 1년…15만7000명 승·하차

전라선 KTX 4회 증편…ITX·마음·무궁화호 일부 조정

목포보성선을 이용해 주요역을 오간 인원이 개통 1년 동안 1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코레일 광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7일 개통한 목포보성선과 기존 경전선을 이용한 누적 이용객은 약 38만7000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목포보성선 주요역의 승·하차 인원은 15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역별로는 영암역 8000명, 해남역 3만 8000명, 강진역 4만5000명, 전남장항역 3만7000명, 장동역 3000명, 신보성역 2만6000명이다.

목포보성선은 목포에서 영암·해남·강진·장흥·보성을 거쳐 순천~부산을 연결하고 있다.

목포보성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다. 새마을호는 주중 2회·주말 4회, 무궁화호는 주중·주말 구분 없이 6회 운행된다. 이에 따라 목포보성선에는 주중 하루 8회, 주말 하루 10회의 열차가 운행되고 있다.

목포역에서 신보성역까지는 최소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어 전남 서남권과 순천권역을 오가는 지역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있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목포보성선 개통 1주년을 맞아 최근 이용객들에게 기념품과 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을 전달

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목포보성선이 지역 간 이동뿐 아니라 관광과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훈 코레일 광주본부장은 “목포보성선 개통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철도를 이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연계교통을 강화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 전남본부는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라선 KTX 임시열차를 증편한다. 이에 5일과 8일 KTX-산천 4151·4152열차를 하루 2회씩 총 4회 추가 운행한다.

4151열차는 오전 7시 18분 행신역에서 출발해 10시 42분 여수엑스포역에 도착한다. 4152열차는 오전 11시 25분 여수엑스포역에서 출발해 오후 3시 22분 서울역에 도착한다.

고속열차와 일반열차 간 환승 편의 개선을 위해 ITX-마음(1527·1529열차)의 출발 시간을 조정, 익산역에서 호남고속선 KTX와의 환승 대기시간을 맞췄다. 이를 통해 KTX 운행 간격이 약 2시간 30분으로 벌어지던 오후 시간대 용산-여수엑스포 구간의 운행 공백을 해소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특별시 서구, 운천호수공원 노후시설 재정비

사업비 3억 투입…데크·편의시설 등 개선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으로 장기간 관리가 미흡했던 운천호수공원(운천저수지)의 노후시설이 정비된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따르면 총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운천호수공원 내 노후시설과 공원 내부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운천호수공원은 서구 송촌동 869-9번지 일원에 조성된 7만4020㎡ 규모의 공원으로, 화장실과 야와무대, 팔각정, 파고대, 목교데크 570m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기간

장기간 관리되지 못한 시설물을 정비하고 공원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정비 대상은 지압로로, 기존 시설을 철거한 뒤 탄성포장을 새로 설치하고 경계블록과 경계석을 정비한다. 공원 내 잡목을 제거하고 데크 도색과 수목 정비도 함께 진행한다.

이와 함께 그네의자 등 편의시설을 교체하고 운천호수의 주요 볼거리 중 하나인 음압분수 시설도 정비할 예정이다.

앞서 서구는 지난해 23일부터 정비사업 입찰공고를 진행했다.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가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운천저수지는 1951년 마름동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길이 420m의 제방을 쌓았고 급호·상무지구의 대규모 택지 개발 후 악취와 해충 문제로 매립될 위기에 처했지만 1995년부터 오·폐수를 차단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 저수지와 주변 공간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했다. 현재 이곳은 현재 시민들의 산책 명소로 알려졌다.

서구 관계자는 “사계절 내내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전남광주 9월 평균기온 23.8도…평년 웃돌아

강수량 42mm로 평년 이하…강수일수도 5.4일 줄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난 9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던 반면 강수량은 평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9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전남광주의 9월 평균기온은 23.8도로, 평년(22.0도)보다 1.8도

높았다. 9월 평균기온이 평년을 웃돈 것은 6년 연속이다.

특히 19~24일에는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발생했다.

반면 강수량은 평년보다 크게 적었다.

9월 전남광주 강수량은 42.0mm로, 평년(156.0mm)의 27.5%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달 강수량(141.7mm)과 비교해도 크게 줄었다.

최근 10년(2016~2025년) 간 9월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았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적었다. 강수일수도 3.7일로 평년(9.1일)보다 5.4일 줄었다. 비가 적게 내리면서 기상기름 발생일수는 14.3일을 기록했다. 평균 해수면은 열대야가 발생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6:31	달출	18:10
☁️	예보	01:31	달몰	15:44



광주	☀️	12~23
목포	☀️	14~21
여수	☀️	13~23
순천	☀️	12~23
구례	☀️	10~22
광주	☀️	10~22
임도	☀️	13~23
흑산도	☀️	18~22
전남	☀️	11~23
진도	☀️	13~21

목포	일출(고)	10:16 / 23:15
	해질(저)	03:57 / 15:53
여수	일출(고)	05:58 / 18:27
	해질(저)	00:07 / 11:46

미성년자 오토바이 강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 김중석 재판장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상해·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4개월이 선고된 A군 등 3명의 원심을 유지.

다만 공범 B군(18)의 원심인 징역 1년~6개월은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2시 13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풍향동 서방시장 주변에서 번화한 곳을 지나던 오토바이 1대에 피해자들을 협박·폭행한 혐의로 기소.

이들 일행은 '무면허 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뒤 화상을 입히는 등 전지 2주의 부상을 가하고, 빼앗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적용.

재판부는 “미성년자임을 감안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B군의 범행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취업하러 왔습니다”…남구, 일자리박람회 성황

구인업체 63곳 참가…대학생 등 400명 발걸음

16일까지 온라인 채용관 운영…창업 멘토링도

“어떤 기업이 저에게 맞는지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광주대 학교 호심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남구 JOB 페스타’.

광주특별시 남구와 광주대학교 영커사업단 일자리지원ON센터, 송원대학교 영커사업단 등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63개 기업과 구직자 400여명이 참여했다.

현장 면접을 비롯해 공기업 취업 컨설팅, 정책 홍보, 취업 역량 상담, 창업 멘토링 등 구직자들의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구직자들은 관심 있는 기업의 채용 분야와 근무 조건, 지원 절차 등을 살펴보고 자신의 경력과 희망 직무에 맞는 일자리가 있는지 확인했다. 기업 관계자들도 구직자들과 직접 만나 필요한 인재상과

직무 내용을 설명하며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주지윤씨(22·광주대 3년)는 “교수님 추천으로 취업 준비에 참고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식품영양학을 전공하고 있어 식품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공기업 취업 준비생을 위한 컨설팅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광주교통공사 등 공기업 취업 준비하는 구직자들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발표(PT) 면접, 기술직 준비 방법 등을 상담했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광주대학교 호심기념도서관에서 열린 ‘남구 JOB 페스타’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기업채용관에서 면접을 보고 있다.

취업준비생 김정서씨(26)는 “공기업 채용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NCS 준비와 PT 면접, 기술직 준비 방법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현장 채용 상담을 통해 구직자와 접점을 넓혔다. 참여기업 관계자들은

은 이력서를 지참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채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한편, 당장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기업과 직무를 알리고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남구는 현장 방문이 어려운 구직자들

위한 온라인 채용관도 운영한다. 구직자들은 전용 홈페이지(남구채용박람회.com)에서 참여 기업의 정보와 근무 조건 등을 오는 16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남구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경기 상황이 어렵지만 광주에 반도체 산업 관련 호재가 있는 만큼 청년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취업한 인원은 2021년 25명, 2022년 34명, 2023년 28명, 2024년 46명이었고, 지난해 60명으로 증가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